

부처님은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보았는가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옮김) (정병조 옮김)

16. 인간적 애(愛)에 관해서

말리카의 꽃 이름에 연유한 경(經)

부처의 설법 가운데에 예부터 유명한 설법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 것 외에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 새롭게 주목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설법의 하나에 <말리(末利)>라는 이름의 한 경전이 있다. 또 같은 내용의 경전 가운데는 <애자(愛子)>라는 이름의 경전이 있으며 그것도 또한 비슷한 문제에 관련된 것이므로 여기에 함께 설명하여 볼까 한다.

이들 경전의 주제는 요약하면 인간적 애(愛)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인간적 애의 취급 방법은 예를 들면 기독교가 인간적 애를 취급하는 것과는 전혀 그 성질이 다르며 또 우리들이 불교의 무아(無我)의 가르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인상을 받아온 것과도 상당히 다른 것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뜻에서 처음 이 경전에 접하는 사람들은 꽤 이상한 인상을 받을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

<말리(末利)>라고 하는 경전의 이름은 원래 말리카(malika)라는 꽃 이름에서 온 것이다. 그 꽃은 작고 백색 혹은 황금색이며 머리를 꾸미는 장식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한다. 코소살라국의 왕 프라세나짓트의 왕비는 매일 이 꽃으로 머리 꽃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런 꽃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한역(漢譯)에 <승만(勝?)>이란 것은 이 말리카의 번역이다.

그런데 이것을 주제로 삼은 경전 가운데 <말리(末利)>라는 제목의 경전만이 한역(漢譯)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물론 남전(南傳)에는 있으면서도 한역에는 없는 경전이 적지는 않다. 그러나 이 경전에서 한역의 동본(同本)이 없는 데는 무슨 특별한 까닭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다만 내 상상(想像)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그만큼 이 경전의 내용은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

그것은 역시 부다가 기원정사(祇園精舍)에 있을 때의 일이었다. 그 때 왕 프라세나짓트가 찾아와서 그 소견(所見)을 말하면서 이 스승의 가르침을 기다렸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어느 날 왕은 비(妃)인 말리카와 함께 왕성의 높은 누각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때 우연히 생각난 것은 이 넓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다. 생각하면 그것은 어떤지 자기 자신이 것같이 생각되었다. 그래서 그는 왕비를 돌아보면서

“말리카여, 당신에게는 무엇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다.

“왕이여, 내에게는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왕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을 듣고 보니 물론 왕도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것, 자기보다 더 사랑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의 의견은 일치하였다. 그러나 생각하면 무언지 마음에 거리가 있는 점이 있었다. 그 두 사람은 모두 부처의 가르침을 들으며 그 가르침에 귀의(歸依)하는 재속(在俗)의 신자(信者)였다.

그런데 그 스승의 가르치는 바는 무언지 훨씬 깊고 초월적(超越的)인 듯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 스승은 무아(無我)의 가르침을 강조하며 설명하였다. 자기에게 집착함으로써 인간에게 불행, 불안, 번뇌가 생긴다고도 설명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을 다시 생각하여 볼 때, 이제 두 사람이 일치한 결론은 어떤지 약간 씩스러운 듯이 생각되었다.

이 왕은 무슨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어떤 소견(所見)이 생겼을 때는 언제나 그것을 스승에게 말하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는 버릇이 있었다. 오늘도 이 결론에 도달하여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곧 이 스승을 찾아와서 그 가르침을 기다린 것이다. 부다는 조용히 왕의 말을 듣고 있었으나 곧 깊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결론을 긍정하였다. 그리고 게(偈)로써 이렇게 가르치셨다.

사람의 생각이란 어디에도 갈 수 있는 법. 그러나 어디에 가진 사람은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을 찾을 수는 없으리라. 그와 같이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는 다시 없이 사랑스러우니라. 그리고로 자기의 사랑스러움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해(害)치지 말지니라.

인간적 애(愛)의 경정

이 게(偈)가 가르치는 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 전편은 왕과 왕비가 도달하였다는 결론 즉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사랑스럽다. 자기에게 있어 가장 관심이 큰 것은 자기 자신이란 것을 부다 또한 깊이 긍정하며 인정하였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매우 당연한 일이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듯이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꿈꿈이 생각하면 거기에 불교의 중요한 특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등사의 나무상. 전등사를 만든 도연수의 어긋난 사랑의 이야기가 담겼다. 기독교의 경우 절대자와 인간의 사랑은 구별되지만 불교는 인간적 사랑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것을 더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

“너희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하여도 무슨 보답을 얻을 수 있겠는가. 형제에게만 인사한다 하여도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이방인(異邦人)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이 사랑스럽다는 감정은 어찌할 수 없는 본래의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자기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사랑한다. 자기의 어버이를 사랑한다. 자기의 아내를 사랑한다. 또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며 친구를 사랑하며 자기의 이웃을 사랑한다. 그런데 지금 복음서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애정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인간적 애, 즉 에로스(eros)이며 단호히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에로스는 단호히 버리며 신적(神聖) 사랑 즉 아가페(agape)라고 불리는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사랑에 관한 기본적 태도이다.

사람의 사랑과 신(神)의 사랑은 전혀 다른 성질의 사랑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는 전혀 서로 상반(相反)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 본래 기독교에 있어서 ‘사랑’에 관한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지금 부다는 이 왕과 왕비의 인간적인 사랑에 관한 사고(思考)를 부정하지 않는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스럽다는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을 조금도 부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깊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주목해야 하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큰 요점이다. 지금은 선사(禪師)가 매우 많은데, 다 말하기를 “나는 부처님 법을 알았다” 하니, 어떻게 그 싹되고 바를 분별코자 하는가.

답: 슬기롭구나 이 질문이여, 이는 진실로 학자의 지남(指南)이다. 말하자면 우리 종문(宗門)의 법을 처음 가섭(迦葉)에게 별전(別傳)함으로써 이후로 등등(燈燈)이 불꽃을 계속 하였으며, 인인(印印)이 서로 전하여 이십 팔대(二十八代)를 지나 달마대사(達磨大師)가 동쪽으로 이 땅에 오시어 ‘바로 사람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보고 부처를 이루라’ 고 하셨다.

육조(六祖)로부터 이하로는 다섯 파가 되었는데, 파(派)는 비록 같지 않으나 도는 곧 하나이다.

무릇 이 도를 서로 전함은 물과 불이 서로 함께 함과 같아 그 사람을 얻으면 전하고, 그 사람을 얻지 못하면 그친다. 비록 부자(父子)의 친함과 사귀어 오래 되어 친밀함과 신통삼매(神通三昧)와 덕이 광대하고 행이 고결한 자라도 만일 정문정안(頂門正眼)을 갖추지 못했다면 다 무릎 아래로 물리치는 것은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깨달음 유무를 확인하는 법

문: 지금 부처를 배우는 자는 반드시 화두를 참구함으로써 도에 들어가는 방편을 삼는데, 정·혜의 의논은 이것과 어떻게 다른가.

답: 다르지 않다. 과(果)에 있어서는 정혜(定慧)라 말하고, 인(因)에 있어서는 지관(止觀)이라 말하는데, 지관이란 화두를 참구하는 법이다.

화두 참구하는 것은 하나로(單)로 제 집(提接)하므로써 초보(初步)를 삼고, 전체로 제접하므로써 자량(資糧)을 삼는다. 자량은 걸음을 걷는 밑천이 되고, 걸음을 걷는 것은 자량의 효과니, 두 가지가 갖추어진 이후에야 그 이를 바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로 제접함을 따라 극치에는 요동하지 않는 것이 곧 정(定)이고, 전체로 제접함을 따라 활연히 크게 깨달음은 혜(慧)이다. 이름은 비록 다르나 뜻은 곧 하나이니, 대체로 무슨 다름이 있겠는가.

문: 부처님이 불법을 배우는 사람의 경계하여 곧 말씀하시기를 “탈팔만한테서 어긋나고, 잠깐 사이에 실수한다” 고 하셨으니, 이는 부처를 배우는

그 도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오묘하기 때문이며 대공무사(大空無私)하여 굳이 허망하게 전수하지 않음은 어묵(魚目)과 명주(明珠)는 서로 비슷하지만 진실로 서로 속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옛날에 도를 배우는 선비는 스승을 찾고 도를 방문하기를 천리·만리도 멀다 여기지 않았다. 강과 바다에 노닐며, 산천(山川)을 건너 명안종사(明眼宗師)로써 혈맥(血脈)이 단적(端的)한 자를 결탁하면 몸을 던져 예를 올리고 스승을 삼았으며,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잊어버리면서 묻고, 참구하고, 정하여 구차히 한 말의 이익만 얻어도 생사의 근원을 결단하였다.

그러므로 대혜선사(大慧禪師)가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파계(破戒)하기를 수미(須彌)산 같이 할지 언정 사된 스승에게 하나의 싹된 생각이라도 물리지 않게 해야 한다. 만일 개자(芥子)만큼이라도 정식(精識) 속에 있다면 마치 기름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 같이 벗어나지 못하고 같다’ 고 하시어 이것인데, 살피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또 더구나 위음왕불(威音王佛=최초의 부처님) 이후로는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은 자는 천연외도(天然外道)이다. 그러므로 대도(大道)를 사무치게 깨우

스승없이 스스로 깨달은 자는 ‘天然外道’

사무치게 깨우치고 종장에게 인가받아야

자의 큰 요점이다. 지금은 선사(禪師)가 매우 많은데, 다 말하기를 “나는 부처님 법을 알았다” 하니, 어떻게 그 싹되고 바를 분별코자 하는가.

답: 슬기롭구나 이 질문이여, 이는 진실로 학자의 지남(指南)이다. 말하자면 우리 종문(宗門)의 법을 처음 가섭(迦葉)에게 별전(別傳)함으로써 이후로 등등(燈燈)이 불꽃을 계속 하였으며, 인인(印印)이 서로 전하여 이십 팔대(二十八代)를 지나 달마대사(達磨大師)가 동쪽으로 이 땅에 오시어 ‘바로 사람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보고 부처를 이루라’ 고 하셨다.

육조(六祖)로부터 이하로는 다섯 파가 되었는데, 파(派)는 비록 같지 않으나 도는 곧 하나이다.

무릇 이 도를 서로 전함은 물과 불이 서로 함께 함과 같아 그 사람을 얻으면 전하고, 그 사람을 얻지 못하면 그친다.

비록 부자(父子)의 친함과 사귀어 오래 되어 친밀함과 신통삼매(神通三昧)와 덕이 광대하고 행이 고결한 자라도 만일 정문정안(頂門正眼)을 갖추지 못했다면 다 무릎 아래로 물리치는 것은

천 자는 반드시 종장(宗匠)에게 질문해 보고 싹되고 바를 결탁하여 인가(印可)를 받은 이후에야 큰 입을 열고 큰 말을 설하여 강령을 이끌고 명령을 들어 사방에서 오는 학자를 제접하여 인천(人天)의 안목이 되는 것이다.

만일 그가 그러하지 못했다면 혹 스스로 깨달은 문이 있다 해도 입 밖에 발설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아직은 싹되고 바를 결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즈음 선사(禪師)라고 호칭하는 자는 가만히 조사(祖師)의 호령을 행하며 한갓 구이(口耳)의 학(學)으로써 본보기를 의지하여 고양이를 그리며, 뜻을 방자하게 하여 도를 어지럽히면서도 선(禪)을 설한다 말하니,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것을 두고 대반야(大般若)를 비방한다 말하며, 무간지옥(無間地獄)의 업(業)에 떨어진다 말하는데, 아—아 두려워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부처님오신날 특별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78,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제15, 종지용출품(21:13)	제22, 축루품(04:36)
CD02-제2, 방편품(46:5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CD08-제16, 여래수랑품(21:15)	제23, 악왕보살본사품(23:10)
CD03-제3, 비유품(54:48)	제10, 법사품(18:39)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24, 모음보살품(16:12)
CD04-제4, 신해품(30:24)	제11, 경보탈품(22:19)	제18, 수회공덕품(13:23)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5, 약조유품(16:08)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6, 다리니품(10:07)
제6, 수기품(17:13)	CD07-제13, 권자품(10:0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7, 모장염왕본사품(14:46)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14, 인락행품(27:27)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연불상